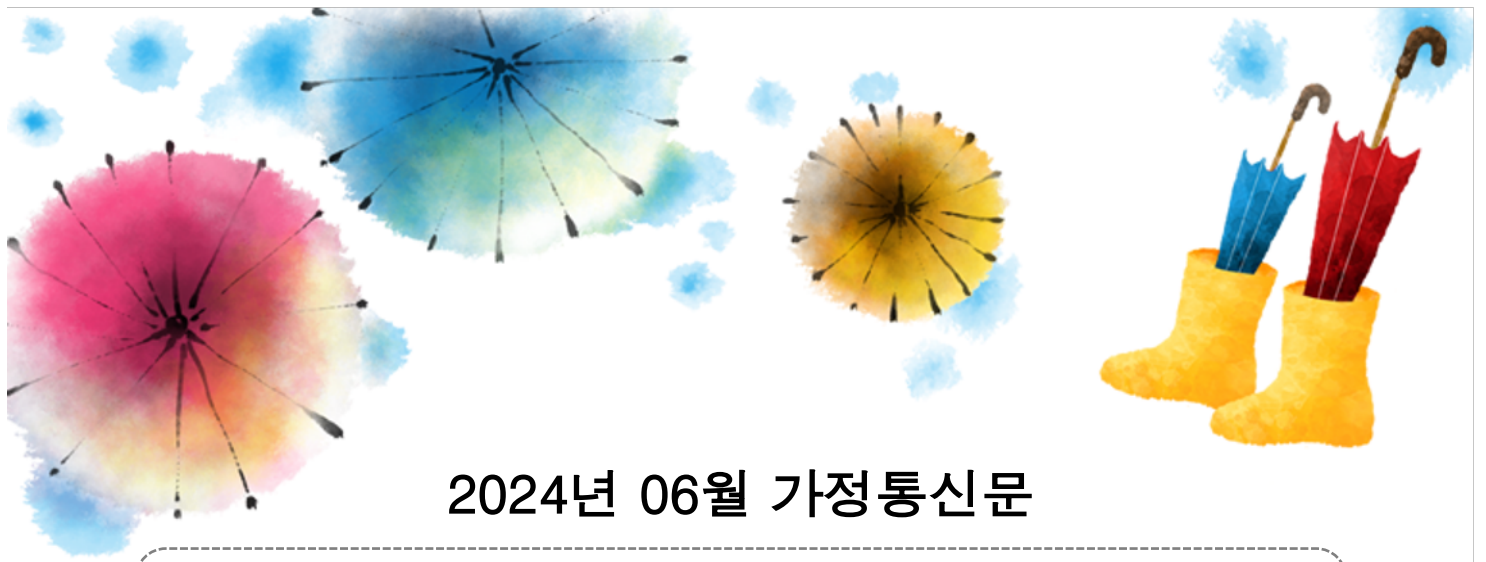




2024년 06월 가정통신문

안녕하세요 6월도 어느 덧 절반이 지나고 올해의 반을 보내고 있네요

엔젤요양원 보호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에 어르신들은 방에서만 지내셔야 하니 생각하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다들 무탈하게 지내고 계시니 감사한 일이지요.

1.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얇은 옷, 시트 교체하고 실내 온도에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피부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특히 더 신경 쓰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생기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2. 6월에는 2주 이상 실습생들이 나올 예정이며 평일 오전에는 청소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3. 외부 프로그램 요일이 기존 월,화,목,금에서 월,수,목,금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프로그램이 진행 되오니 면회 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4. 7월부터 목욕하는 요일이 수, 목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수,목 오전 9시부터 10시반까지 가장 바쁜 시간이라 면회 하실 때 이 시간대만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면회 오실 때 어르신께 드릴 간식을 선생님들께 건네주시면 저희가 따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르신께 바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숨겨 놓고 몰래 드시기도 해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고 누워서 드시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등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 푸르른 날씨만큼 가정에 늘 밝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